



## (주)에네스지

# 사람에 대한 신뢰, 기술에 대한 신뢰 최첨단 전력 설비 선도 기업!

2002년 설립된 (주)에네스지(대표 양종대)는 발전분야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사우디 담수화 발전 등 48기의 해외발전소 인수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강한 기업이다. 또한 두산중공업과 함께 국내 화력발전소의 터빈 인수성능시험을 수행하는 등 국내외에서 그 기술력을 공인받고 있다.

“ 비전 : Engineering Champion!    슬로건 : ONE TEAM ONE DREAM ”

지난 2012년 5월, 에네스지는 대전시 유성구 대덕테크노벨리에 신사옥과 2개 동의 공장을 신축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. 에네스지의 신사옥은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. 유압동을 비롯한 2개의 공장동과 각종 시험실, 또 아시아 권역에서는 최초로 알려진 '원자력 주급수 유량계 교정설비동'을 갖추고 있다.

에네스지의 성능기술은 국내 최고의 성능진단 및 계측 전문 기관이라 자부할 만하며, 특히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적 기업과 대등하거나 더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더불어 유압기술도 에네스지를 말하는데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분야다. 증기터빈의 증기조절밸브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유압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이 바로 유압분야다. 이는 발전소에서 증기 조절 밸브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, 발전소가 정지되거나 출력 감발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. 에네스지는 자체 보유한 발전소 유압시스템 전문 엔지니어링 인력 및 특허기술을 적용, 설계-제작-정비를 토털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.

특히 산업부와 6개 발전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‘터빈 유압 액츄레이터의 국산화 및 종합 성능시험 장치’를 통해 설비의 건전성 평가기술과 신제품을 보급하고 있다.


이와 함께 건전성 평가기술은 에네스지의 근간 사업이며, 발전 플랜트 핵심설비에 대한 건전성 진단 및 평가서비스, 가동 중 검사도 수행하고 있다.



원자력 주급수 유량계 교정설비동



또한 원자력정비기술 발군이다. 이 기술로 에네스지는 원자로를 중심으로 원자로 냉각재 계통 기기와 1차 측 배관 등의 정비, 설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, 원전 핵심설비와 관련된 각종 특수 장비의 제작 및 개발을 통해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영역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.

양종대 대표는 “늘 두 가지 신념을 가지고 있다”고 말했다. 바로 ‘사람’과 ‘기술’이다. “사람과 기술이 일치될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하고 가치 있는 사업이 탄생할 것”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, 이를 바탕으로 “합리성, 전문성과 함께 세계화의 경영목표를 가지고 세계 전력 시장에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”고 강조했다. 

주요  
연혁

- 2002년 주식회사 에네스코 설립
- 2003년 기업부설연구소 인증
- 2006년 ISO 9001 인증, ISO 14001 인증
- 2007년 비파괴 검사업 등록

- 2008년 신제품(NET), 신기술(NET) 인증 취득
- 2010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-BIZ 선정
- 2012년 (주)에네스지로 사명 변경
- 2013년 국제공인교정기관(KORAS) 등록